

장례사역 지침서

Christian Funeral Ministry Handbook



최종인 목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박사

공군 군목

시민교회, 오하이오훈인학생선교회 담임목사 역임

평화교회 담임목사

성결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외래교수

commission@naver.com

서문

죽음이란 인생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필연적인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당장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슬픔과 고통을 수반하지만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례사역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교제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장례를 통해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례가 발생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섬김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장례사역의 원칙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장례사역을 통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소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미리 경험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복음적이고 교회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때로 장례식장의 담당자 혹은 상조회사 장례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 지역 원로들이나 상을 당한 집안 어른들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장례는 성경적이며 교회의 예식이어야 합니다. **기독교장례사역은 목회적인 배려와 신앙적인 지도가 따라야 합니다.** 임종단계부터 목회자와 장례사역자가 관여하여 비 신앙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이 책은 장례진행의 경험이 부족한 젊은 목회자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책을 통해 장례사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당장 장례식이 발생했을 때 지침서로 사용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목회자 누구나 이 책만 있으면 장례예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들의 장례위원회, 혹은 상조위원회 교육을 위해 필요합니다. 평신도들에게는 이 책이 어느 가정이나 발생하는 장례에 대한 준비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종인 목사

장례사역 지침서

Contents...

I. 임종사역

- 1-1 임종사역이란? / 3
- 1-2 임종이란? / 4
- 1-3 임종자의 상태 / 5
- 1-4 임종자의 심리 이해 / 6
- 1-5 임종자의 준비 / 7
- 1-6 임종 전 가족의 대처 / 8
- 1-7 외로운 죽음 / 9
- 1-8 품위 있는 죽음 / 10
- 1-9 호스피스 사역 / 11

II. 장례사역

- 2-1 장례사역의 중요성 / 12
- 2-2 장례사역이란? / 13
- 2-3 죽음의 성경적 의미 / 14
- 2-4 불신자들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 / 15
- 2-5 죽음이 가르쳐주는 진리 / 16
- 2-6 사후세계 / 17
- 2-7 장례사역과 메시지 / 18
- 2-8 장례문화 개선 / 19

III. 장례실제

- 3-1 장례방법 / 20
- 3-2 기독교 장례의 순서 / 21
- 3-3 개선되어야 할 장례 용어들 / 22
- 3-4 부고 및 분향소 설치 / 23
- 3-5 문상 / 24
- 3-6 발인 및 하관 / 25
- 3-7 장례 용어 / 26

IV. 유족 돌봄사역

- 4-1 유가족 돌봄 / 28
- 4-2 장례직후 / 29
- 4-3 유족을 위한 목회적 지원 / 30
- 4-4 유족상담 / 31
- 4-5 애도의 기술 / 32
- 4-6 사별자의 애도 단계 / 33
- 4-7 추모예배 / 34

V. 장례식 설교

- 5-1 나사로의 죽음 / 35
- 5-2 모세의 임종 / 36
- 5-3 야곱의 장례식 / 37
- 5-4 아론의 복된 죽음 / 38
- 5-5 엘리야의 인생 졸업 / 39
- 5-6 스테반의 죽음 / 40
- 5-7 아브라함의 죽음 / 41
- 5-8 피할 수 없는 죽음 / 42
- 5-9 요셉의 죽음 / 43
- 5-10 베다니 나사로의 죽음 / 44
- 5-11 영원한 집 / 45
- 5-12 의의 면류관 / 46

VI. 장례예식 순서

- 6-1 임종예식 / 47
- 6-2 조문예식(1) / 48
- 6-3 조문예식(2) / 49
- 6-4 조문예식(3) / 50
- 6-5 입관예식(1) / 51
- 6-6 입관예식(2) / 52
- 6-7 발인(환송)예식(1) / 53
- 6-8 발인(장례)예식(2) / 54
- 6-9 하관예식 / 55
- 6-10 화장장(작별)예식 / 56
- 6-11 납골(유골안치)예식 / 57
- 6-12 이장예식 / 58
- 6-13 위로예식(집에 돌아와) / 59
- 6-14 추모예식(1) / 60
- 6-15 추모예식(2) / 61

찬송가 / 62

I. 임종사역

1-1 임종사역이란?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것을 운명(殞命) 또는 죽음이라고 하며, 그 시기가 다가온 것을 임종이라고 합니다. 임종은 한 인간이 그 삶의 최후를 맞는 가장 엄숙한 순간입니다. 그가 삶의 마지막 기간에 적절하고도 지속적인 돌봄을 받아왔다면, 임종의 순간이야말로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최고의 성숙에 도달하는 때라고 할 것입니다. 임종사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임종예배: 임종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에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신앙고백을 드리게 합니다. 그러나 의사표현이 힘든데도 너무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써 어떠한 두려움이나 공포도 없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 영생 및 부활의 희망 속에서 죽음에 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임종세례: 비 그리스도인인 경우 아직 의식이 있을 경우 예수그리스도를 영접케 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으로 가족들이 세례를 원하는 경우 임종세례를 행합니다. 임종자의 고백은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마지막 기회를 갖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임종자는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평안 가운데 임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임종상담: 임종시 가족들은 위기와 안타까움이 최고도에 이르므로 가장 영적으로 갈급한 때이기에 이때 적절한 목회적 돌봄은 가족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가족들은 말하지 않아도 많은 신학적, 철학적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때 적절한 말씀과 상담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1-2 임종이란?

임종이란 무엇입니까?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서 끊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또한 임종이란 가족들의 입장에서 운명하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임종하게 되면 먼저 교회에 알려서 장례절차를 의논하도록 합니다.

병원에서 임종하는 경우: 최근에는 임종직전에 대부분 병원에 옮겨 병원에서 임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식 임종예식을 갖도록 하되 병원의 다른 환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종 직후에는 가족이 고인의 눈을 감겨드리는 것이 좋겠고 시신이 장례식장으로 옮겨지기 까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집에서 임종하게 될 경우: ① 베개로 머리를 바로잡고 시신을 바로 편 다음 백지나 솜으로 귀, 코, 입 등을 막습니다. ② 시신이 굳기 전에 팔과 다리의 관절을 가볍게 주물러 펴고 몸도 뒤틀리지 않도록 바로 잡아 줍니다. ③ 손가락을 주물러 펴고 엄지손가락을 백지로 감아 두 손을 배위에 가지런히 놓고 두 발도 묶어 가지런히 펴줍니다. ④ 깨끗한 천으로 시신을 덮고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려 놓습니다.

장례를 위해 준비할 것: 장례를 막 당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① 먼저 상주를 세우되 상주는 고인의 자녀 중 장남이 되며, 아들이 없는 경우 장손이 상주를 맡습니다. 상주는 상례를 하는 동안 상가를 지키게 합니다. ② 교인이나 친척 중에서 상사 일체를 총감독하며 보살필 호상(護喪)을 선정합니다. ③ 장례일정을 계획합니다. 기독교인 가정에서는 교회에 알려 교회주관으로 장례를 진행함이 마땅합니다.

- 사망진단서, 주민등록초본, 장의물품 등을 준비하고
- 장례일자, 장례식장, 방법을 계획합니다.
- 임종예배, 입관예배, 발인(장례)예배, 장례방식을 의논하며
- 또한 가까운 친척과 친지들에게 부고(전화)를 전합니다.

1-3 임종자의 상태

성도들은 임종자의 상태를 알아 적절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종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폐쇄형: 우선 의료진이나 가족들이 임종자에게 상태를 알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사자가 충격 받을 것을 우려하여 가족들이 알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임종자는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모르기에 장례사역자들은 이런 이들을 대할 때 주의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침묵형: 가족이나 의료진이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죽어가고 있음을 아는 경우입니다. 이런 이들은 거꾸로 가족들이 고통 받을 것을 예상하여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면형: 본인도 가족도 임종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애써 서로 모른 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임종자들을 위해서는 교회와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마음을 열고 죽음준비를 하게 됩니다.

반항형: 자신의 임종사실을 거부하고 격렬하게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드럽게 대해주며 모든 이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어 감정을 누그러 뜨려야 합니다.

자책형: 남은 가족들에게 대한 자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일에 미련을 두지 말며, 하나님께서 남은 가족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평안히 가도록 말씀으로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 * 죽음은 삶의 한 과정이다(잠 3:1-2,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 *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요 5:24,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 * 죽음은 모든 인생에게 허락하신 섭리이다(히 9:27,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
- * 먼저 갈뿐 언젠가 우리 모두 가는 길이다(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 *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눅 23:43,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1-4 임종자의 심리 이해

죽음에 직면한 이들을 깊이 연구한 퀴블러 로스(Elizabeth Kübler Ross)는 그의 저서 「On Death and Dying」에서 임종기의 환자가 거치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다섯 단계 즉, 부정과 고립, 분노, 타협, 수용의 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임종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다 묘사한다고 할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부정과 고립의 단계: 임종자는 의사나 그의 가족으로부터 직접 들은 바가 없을 지라도 흔히 자신의 상태를 자각하게 됩니다. 자각에도 불구하고 건강 상태가 악화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에 대해 부정하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분노의 단계: 회복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 때 분노심, 사나움 그리고 원망의 감정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족과 의료진이 감당하기 대단히 힘듭니다.

타협의 단계: 부정과 분노의 단계에서 현실을 외면하던 태도의 기간이 경과하면 점차 현실을 바라보고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타협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시기의 환자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인정하면서 생명 연장에 대한 소망 또는 임종의 과정 중에 겪게 되는 육체적 고통과 온갖 불편함이 없기를 바라며 타협을 시도합니다.

우울의 단계: 이때 환자는 증상이 더 뚜렷해져 가고 몸이 현저하게 쇠약해져 회복의 소망마저 상실하게 되며, 점차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결과에 대해서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초연했던 자세와 무감동, 분노와 격정은 극도의 우울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환자는 깊은 침체에 들어가 말도 안하고 자기 혼자 씨름하면서 과거의 상실, 이루지 못한 일, 그리고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수용의 단계: 환자는 이 단계에 이를 때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분노나 침울은 사라지고 죽음을 차분히 맞이할 상태가 됩니다. 관심 범위가 좁아지고 자신의 몸 상태 외에는 다른 문제로 인하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때 임종환자의 감정은 공백기에 가깝게 됩니다.

1-5 임종자의 준비

성도들의 경우 임종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먼저 죽을 것을 알고 죽음을 용납해야 합니다. 폴 투르니에는 “죽음을 용납하는 것은 가장 훌륭한 죽음준비”라고 했습니다. 의식이 있는 가운데 죽음을 맞게 된다면 죽음을 피할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인생의 휴가’를 맞는다고 여기십시오. 휴가 전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듯 인생 휴가에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으십시오.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죽음도 주관하십니다. 어차피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임종의 순간을 두렵게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죽음 그 자체보다 죽음 직전에 닥칠 고통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사(生死)가 주께 달려있음을 믿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어떤 학생이 대학입시에서 1학기 수시입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학생은 2학기 수능고사 날짜가 와도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학 입학자격을 받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더 좋은 세상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기도부탁은 좋은 일입니다. 임종을 자각하는 경우가 흔치않지만 그래도 혹시 때가 가까웠다고 느껴지면 주변의 성도들에게나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종 때 목사의 기도를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불신가족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신변정리를 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나 용서할 것이 있으면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남기는 물건들의 처리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후에 시신기증이나 장기기증을 생각한다면 유언을 남겨두어야 혼동이 없습니다. 신앙적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장례방법이나 집례자들을 정하고, 초청자 명단들을 남기십시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남아있다면 성경을 읽거나 찬송을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과 찬송이 큰 힘이 됩니다.

1-6 임종 전 가족의 대처

임종하는 이가 준비할 것이 있다면, 임종자의 가족들도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가족회의를 합니다.** 혼자 결정하게 되면 장례문제도 복잡해지고, 사후 남은 가족들끼리 분쟁의 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호스피스기관에 요청을 하십시오.** 호스피스 치료를 원치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호스피스는 누구나 필요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최후까지 존엄하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도록 배려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기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며 마지막을 보내는 것은 임종자에게 좋은 일입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아플 때 기도가 중요하듯, 임종 때 기도가 필요함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불완전한 섬김을 완전하게 마침표를 찍어줍니다.

임종실에서나 가정에서 **임종시 가족들이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종자가 갑자기 불안해하고 격렬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침착하게 의료진을 부르거나 손을 잡아줍니다.

2) 임종자가 반응이 없어지고 점점 활기를 잃어갑니다. 이런 경우 사랑의 말을 해주고, 손을 잡아줍니다. 평안히 임종하도록 성경을 옆에서 읽어주거나 가벼운 찬양을 불러 주는 것도 좋습니다.

3) 임종자가 갑자기 큰 몸동작을 하거나 손을 젖습니다. 임종의 때가 온줄 알고 마지막으로 무언가 의사표시를 하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귀를 기울여주고, 손을 잡아주거나 심장 가까운 부분에 손을 얹어 주면, 임종자는 안정하게 됩니다.

4)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거나 고통의 표현을 합니다. 몸을 뒤틀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의 임종순간에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놀라지 말고, 편안하도록 붙잡아 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의사나 의료진을 불러 임종의 때가 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1-7 외로운 죽음

현대에는 더 많은 기능과 생산을 통해 얻게 되는 더 많은 소비와 삶의 향유가 환영받는 시대이다 보니 이를 방해하는 질병이나 노화, 신체장애나 죽음은 이 사회의 기능과 능력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요소로 간주되고 맙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산적인 인간이 이상적 모델로 간주되고 상대적으로 회생의 가능성이 없는 죽어가는 사람은 비생산적인 요소로 간주되어 진정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교류: 죽음이 다가온 순간만큼은 영적으로 매우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죽어가는 자와 세상에 남은 자 간에 합당한 영적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사람들과 나누는 마지막 교감, 위로, 사랑, 슬픔, 이런 감정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죽어가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생명이란 가치 있다는 것과 이 세상과 내세에 대한 마지막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심리적인지지: 말기 암환자들 대부분은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절망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임종자들은 희망이 없이 버려진 상태로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병원제도의 특성 때문에 불필요한 생명연장 장치를 몸에 두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장소에서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새로운 의학과 현대장비들과 새로 개발된 약품들과 함께 언제고 끝나는 기약 없이 누워 인생의 '외로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윤리: 의학에도 철학과 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현대과학이 거인처럼 버티고 있어서 종교나 윤리나 철학이 틈을 열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종합병원 중환자실은 감성적이고, 호의적인 생각이나 신앙적 사고가 들어갈 여지가 막혀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의식을 갖고 '외로운 죽음'을 방관해서는 안된다. 고도로 전문화되고 낯선 의료인에게 인생의 마지막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되고 '아르스 모리엔디'(ars moriendi) 죽음의 미학, 즉 '아름다운 이별'이 있어야 합니다.

1-8 품위 있는 죽음

누구나 죽음의 순간에 품위 있는 죽음을 맞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 사회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데 있습니다.

임종문화: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여 인간의 수명은 늘었으나 동시에 의학적 딜레마도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말기환자가 불필요한 삶의 연장을 피하려 하지만 현대의학과 법에서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었던 인생이 떠나는 그 엄숙한 상황에 아무런 보살핌이나 돌봄도 제공받지 못하는 채 제대로 작별인사도 못하는 채 떠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바른 임종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죽음준비: 이사를 해도 준비하고, 학교에 가도 준비하며, 직장에 들어가려 해도 준비할 것이 많은데 정작 인생에 가장 중요한 대사(大事)인 죽음 앞에서는 준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강단에서도 죽음에 대해 가르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성경적 죽음과 천국에 대해 바로 가르쳐 죽음을 잘 준비하게 해야 합니다.

잘 죽는 법 교육: 잘 죽는 법에 대한 책이나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웰빙을 원하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실은 잘 죽는 법(웰다잉)을 모르면 잘 살기(웰빙)는 없습니다. 웰다잉 교육에 대해 심리적으로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죽음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면 '잘 죽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마땅합니다.

- 1) 마지막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신앙적 유언을 남기십시오.
- 2) 인생의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 3) 마지막 순간에 집착이나 번뇌를 그치고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 4) 임종의 순간이 중요합니다. 예배와 찬송, 기도는 효과가 큼니다.
- 5) 호스피스 기관에 들어가 임종을 맞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6) 병원에 가기 전에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1-9 호스피스 사역

호스피스란 치유 가능성이 없고 죽음에 직면한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임종자들의 신체적 고통을 완화시키고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평온한 죽음을 맞도록 간호하는 사람 또는 그런 특수 의료시설을 이르는 말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중세 유럽 성지 순례자들에게 휴식과 간단한 치료 등을 제공한 데서 비롯되었으며,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분노와 우울 등의 혼란스러움을 자연스럽게 극복하여 최후의 순간까지 인간다운 삶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치유목회: 죽음을 앞둔 임종자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정서적, 신체적, 영적 문제점들을 돌보아주는 치유사역입니다. 통계적으로 호스피스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을 맞는 자세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선교: 호스피스 사역은 임종자와 그 가족까지 복음으로 돌보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조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본래 선교의 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대상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서 저들의 마음을 열고, 다음에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기독교적 사랑: 호스피스는 임종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임종 직전의 환자들을 돌보며, 삶과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 주는 것이기에 기독교 정신에 부합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배우듯이, 죽음의 고통에 있는 이들을 돌보는 것은 주님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돌봄의 대상: 만약 교회가 호스피스 사역을 외면한다면, 요청하는 사람들은 타종교 기관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기관들을 이용할 것이며, 비종교인에게 도움을 받는다면, 임종 직전에 아무런 신앙적 돌봄을 받지 못해 안타깝게 됩니다. 늦었지만 교회는 호스피스 인력과 파송기관을 세워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자들을 많이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II. 장례사역

2-1 장례사역의 중요성

교회는 일찍부터 성도들의 출생부터 입학과 결혼, 투병,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여정마다 관여하여 상담과 기도 및 예배 등으로 목회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장례사역이야 말로 그 미치는 파급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장례예식에 관한 지식이나 예전이 대단히 빈약한 수준입니다. 죽음을 보는 신학적 안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성도의 거룩한 죽음과 부활의식에 참여하기보다 폼앗이 성격으로 장례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불신가족들이 참여하는 소중한 전도의 기회임에도 아쉽게도 전례에 따라 의식서를 낭독하는 수준으로 지나는 장례예식도 많습니다. 장례사역은 교회가 재발견해야 할 중요한 사역입니다.

장례사역은 고인을 위한 사역입니다. 고인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긴 인생의 여정을 마친 고인을 정중하게 천국으로 환송하는 사역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의 인격이 중요하듯 죽은 자의 인격 또한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장례사역은 임종자를 위한 좋은 배려가 됩니다.

장례사역은 유족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준비를 잘하였다 해도 막상 상을 당하면 유족들은 당황하고 분주하며 힘들어 합니다. 이럴 때 적절한 장례사역은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족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이기는 방법들을 알려주며,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성경적인 치유와 돌봄을 실천하는 기회입니다. 죽음은 결코 개별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은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추억을 줍니다. 좋은 회상으로 남도록 목회적 차원에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장례사역은 성도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교인들은 장례사역에 참여하면서 역시 천국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칫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전 7:2). 인생을 배우게 해주고, 내게 올 죽음을 준비하게 하며, 영적인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2-2 장례사역이란?

기독교인인 우리가 장례사역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섬김 사역: 태어나거나 결혼하는 날 못지않게 성도에게 중요한 날은 장례입니다. 장례예식을 진행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유족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장례를 소홀히 하는 분위기를 느낄 때입니다. 장례사역을 섬김 사역으로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노인 사역: 노인문제는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있는 가정의 문제입니다. 노인병원이나 양로원, 치료기관이 부실하거나 모자라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의료혜택을 완전하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폭력도 문제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언어폭력과 경제적 폭력, 실제로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인의 성(性)도 문제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음지로 감추어진 것이 노인의 성문제입니다. 노인의 노후생활도 문제입니다. 윤리, 도덕이 추락한 이 시점에 교회는 바른 장례사역을 보여줌으로 대사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돌봄 사역: 돌봄(care)이란 현대인들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단어입니다. 장례사역은 임종 후 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종 전에 돌봄, 목회적 배려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삶의 의미와 존엄성을 깨닫게 해주고, 죽음을 예비함으로 두려운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장례를 위해 천천히 준비하면서 영생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해 주는 사역입니다.

네트워크 사역: 장례는 장례식장과 병원, 호스피스 기관, 화장장, 공원묘지, 납골당 등 여러 기관을 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례사역자들은 각 기관들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연합하여 바른 장례문화가 형성되도록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례사역은 교회가 얼마든지 피하거나 적당하게 감당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할 일이 많고,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장례사역을 잘 감당하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유익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2-3 죽음의 성경적 의미

장례사역을 진행함에 앞서 죽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례사역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도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누구도 정확하게 죽음이 왜 오는지? 죽음 이후에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증거 합니다.

죽음의 기원: 성경은 죽음이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은 죽음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창 3:1-9)에서 왔고, 이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됨으로써 오는 영적죽음(창 2:16-17), 육적죽음(창 3:19)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한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롬 5:12), 누구나 죽음으로써 일생을 마치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약 4:14, 히 9:27). 성경은 다른 종교보다 죽음에 대해 명확하게 밝힙니다.

죽음의 상태: 육체적 죽음은 생명의 종말이 아니며, 최후의 심판이 육체적 죽음 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히 9:27). 최후의 심판 때에는 모든 죽은 자의 부활(요 5:28-29)과 믿는 자들의 생명의 부활(고전 15:22-24)로 나누어집니다.

믿는 자의 죽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결코 '모든 것의 종말'을 뜻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출발이 됩니다(요 14:2-3). 믿는 자의 죽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음관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은 1) 죽음을 잔다고 하셨습니다. 나사르가 죽었을 때, '나사르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셨습니다(요 11:11). 잔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 성도가 죽으면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한 강도에게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것을 보십시오. 3) 죽음은 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벧 1:23).

2-4 불신자들의 죽음과 성도의 죽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다가 죽는 사람이나 죽는 것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상이 전혀 다릅니다.

불신자들의 죽음은 무섭습니다. 하버드대학의 ‘인간의 죽음에 대한 강연’에서 윌리엄 오슬러박사는 500명의 임종을 지켜본 결과 90명만이 죽을 때 고통을 보였을 뿐, 대부분의 환자들이 태어날 때처럼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일대 교수 셔윈 B. 뉴랜드는 그의 저서 『How We Die』에서 반대의견을 말하는데, 죽음과의 사투를 벌이는 환자들을 보면 오슬러의 견해가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죽음은 불쌍합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좋은 옷 입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뽀내고 자랑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는 지옥 불 못에 들어가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신자들의 죽음은 괴롭습니다. 지옥에 가서도 괴할 길이 없습니다. 목이 타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그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 형벌을 치러야 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행복합니다. 물론 성도들의 죽음도 당장은 슬퍼 보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성도의 죽음은 복이 있습니다. “자금 이후로 주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계 14:13). **첫째, 성도의 죽음은 외롭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마중나오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거지였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눅 16:22)고 증거합니다. 스테반은 순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행 7:56). **둘째, 성도의 죽음은 슬프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많이 울었습니다. 죄 때문에 울고, 자녀들 때문에 울고, 속상해서 울고, 아파서 울었고, 은혜 받아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니 하나님께서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계 21:4). **셋째, 성도는 죽음이후가 더 행복합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동안 행복하고 살면서 계속해서 파도가 밀려오듯 괴로운 일, 아프고 고통스런 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가에는 열두 달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슬프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런 밤이 없습니다(계 22:1-5).

2-5 죽음이 가르쳐 주는 진리

죽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단절입니다.** 죽음으로 생명은 끝나고 인생이 마감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하지만 실은 고통스런 세상에서 끝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이별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변의 모든 환경들과도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것도 잠시의 이별이 아닌 영원한 이별입니다. 물론 믿는 이들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할 수 있지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이별인 것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견해입니다. 죽음으로 결코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과 고통, 외로움, 실망과 근고함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제2의 세계를 향한 새 출발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가르쳐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죽음은 인생이 허무함을 가르쳐 줍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전 1:2)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 4:14)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와의 지음이 그 위에 붉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사 40:7, 8).

죽음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이 내 것이 라면, 왜 죽게 내버려 둥니까? 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음을 맞습니까? 죽음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창 3:19).

죽음은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향은 이곳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본향입니다. 죽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존재임을 알게 합니다.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마라톤 선수는 마음가짐부터 다릅니다. 단거리 선수는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므로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장거리 마라톤 선수는 멀리 내다보고 지혜롭게 달려야 합니다.

2-6 사후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후세계(死後世界)에 대해 관심을 표합니다. 영화, 드라마 등에서는 환생이 유행합니다. "환생"(還生, reincarnation)이란 용어에 대하여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에서 “환생이란 '종교와 철학에서 영혼이 한번 이상 연속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킨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환생이 아닌 부활을 가르칩니다. **환생은 다시 죽어야 할 현세로 복귀하는 것이지만, 부활은 현세와 같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후의 사후세계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죽은 후에도 좋은 곳에 갑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분명히 사후의 생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16절에서 믿음의 의인들이 스스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여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욥은 사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 19:25~26)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영혼 불멸을 믿고 말하기를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시 16:10)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죽은 후에 갈 곳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낙원’, ‘아브라함의 품’, ‘셋째 하늘’, ‘성(城)’, ‘내 아버지 집’, ‘참 하늘’, ‘하늘’, ‘천국’, ‘주와 함께 있는 곳’ 등으로 표현하면서 사후에 믿는 자들이 들어가 거할 곳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같이 이렇게 사후세계에 대해 분명하면서도 많은 정보를 주는 종교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후세계에 대한 부활의 확신을 갖고 죽음이 내게 온다 해도 이 세상에서 소망 중에 살아야 하겠습니까.

2-7 장례사역과 메시지

평소에 듣지 못한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장례사역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영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장례과정에서 평소에 자주 접촉하지 못하고 서먹하던 상가의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죽음이라는 사건을 두고 대화를 나누면서 개인전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됩니다. 그러므로 장례사역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교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장례식 가운데 정중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봉사정신, 그리고 어려운 때 협력하는 모습을 믿지 않은 이웃에게 보여줌으로써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예식진행은 무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장례예식의 절차를 통해 유족들과 참석자들에게 무언(無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의 여러 가지 의식은 고인을 엄중히 모시고, 가족들을 배려하며, 참가자들에게 예를 갖추게 하는 예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엄숙한 순간에 열려진 마음들 속에 기독교의 중심 복음인 부활 신앙으로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되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메시지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설교가 중요할 것이라고 여겨지만 실은 기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봅니다. 장례예식의 기도는 ① 간단해야 합니다. ②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③ 상황에 맞는 기도여야 합니다. ④ 불신자나 자살자의 경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⑤ 유족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⑥ 집례자를 배려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⑦ 참석한 회중들을 고려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⑧ 대부분 마이크 시설이 없는 장소임으로 소리가 잘 전달되도록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합니다.

장례예식의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예식순서나 의전예복이나 순서담당자보다 중요한 것이 메시지입니다. 아첨하거나 감상주의에 빠지는 말,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과 함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적절한 메시지로 전달되어야 효과적입니다.

2-8 장례문화 개선

우리나라 장례문화 가운데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몇 가지 개선할 점을 지적한다면,

장례예식은 교회당에서: 비즈니스화 한 현대의 장례식장에서는 장례의 엄숙함이나 경건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장례예식을 교회당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이 늘 예배드리던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경건한 천국환송예배를 드린다면 유족들에게도 그렇고 자신 분께도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왜 결혼예배는 드리면서 장례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못합니까?

상가에서 음식먹지 말기: 상가에 가서 꼭 음식을 먹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를 잃고 슬픔에 젖어 힘든데, 손님을 대접하느라 제대로 슬퍼할 틈도 없이 뛰어다니게 만드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힘든 일을 털어 주지는 못할지언정 더 짐을 지워주는 셈인 것입니다.

장례도우미들은 섬기는 자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는데 서툴기 때문에 교회의 장례 담당자들의 익숙한 경험은 가족으로서는 큰 도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무슨 일이든지 언제나 가족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섬기려는 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장례를 위해 돕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목적임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장례비용의 최소화: 장례식 비용에 대한 횡포가 많습니다. 장례식 때는 가족들의 몸과 마음이 가장 허약한 때입니다. 이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과다하게 쓰도록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유족들이 부담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과다한 비용을 쓰도록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며 사라져야 할 관행입니다.

III. 장례실제

3-1 장례방법

죽음을 앞둔 성도들이나 가족들이 관심 가져야 할 일은 사후 시신처리 문제입니다. 지혜롭게 미리 준비하게 되면 막상 상을 당할 때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신기증(屍身寄贈): 의과대학에서 실험용 시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나의 육체는 곧 썩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를 의로운 일에, 많은 고통을 받는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현대인들의 관념도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시신기증, 장기기증 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매장: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도 매장을 한 것을 봅니다. 그러다 고대로마시대부터 화장이 병행되어 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묘지를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에서 화장법을 사용했고, 전통적으로 묘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위생적인 방법이라는 이유로, 제한된 토지 때문에, 공간 관리의 측면에서 또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화장을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매장을 고집한다 해서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족들의 정서적인 면에서 매장을 원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혼은 떠났지만 무자비하게 육체를 화장장에 넣는 것은 끔찍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장을 고집한다면, 묘지공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혹은 매장식 납골묘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무연고자 묘지를 재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화장: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여의도 한 배 반만 한 크기의 국토가 매년 묘지로 바뀌고 있다면서 화장을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화장은 좁은 국토를 활용하여야 하는 우리의 경우, 필요한 방법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매장보다 경제적이고, 위생적입니다. 화장은 매장보다 깔끔한 시신 처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각자의 형편에 맡길 일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화장을 더 많이 고려할 때인 것은 사실입니다. 화장 후, 자연장이나 납골당 등지에 유골을 안치합니다.

3-2 기독교 장례의 순서

임종: 환자가 위독하여 임종단계에 이르면 교회에 알려 장례절차를 의논합니다. 1) 임종이 임박할 때는 교역자를 청해 임종예배를 드리며, 가족들이 둘러앉아 조용히 임종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2) 가까운 친지나 친척에게 알립니다. 3) 가족들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애도합니다.

장례: 장례식장을 이용할 경우 1) 기독교식으로 빈소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상복과 관의 주문, 입관식 시간, 조문을 위한 조화 구입, 식사 등을 담당자와 의논합니다. 3) 상가에서 주류사용은 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4) 상주에게 인사는 하지만 영정 앞에서 절(배례)은 하지 않습니다.

입관: 교회와의 정한 시간에 입관하게 되는데 1) 세상에서 마지막 보는 순간이므로 가족이 보는 적당한 시기에 정중하게 위생 수의로 갈아입힌 후 입관합니다. 2) 입관시 미신적인 행위는 일체 삼가고 시신을 깨끗이 하여 수의를 입혀 깨끗하고 적합한 곳에 안치합니다. 3) 입관이 끝나면 입관식을 한 후에 상주와 유족들은 상복을 입고 상장을 부착합니다. 4) 상주는 고인의 상 옆쪽에 앉아 가급적 자리를 지킵니다.

발인: 1) 발인은 보통 사망한 날로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하며, 미신적으로 장례일을 택해선 안 됩니다. 2) 발인 날짜와 시간을 교회에 알려 되 주일에는 발인을 피합니다. 3) 영구가 장지를 떠나기 전 엄숙하고 정중하게 발인식을 합니다.

첫성묘: 삼우제라 하여 보통 3일 만에 묘소에 찾아가는 일은 봉분한 것과 묘비 및 묘역을 살펴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첫성묘’라 부릅니다. 별세 후 49제를 하는 것은 불교적인 우상숭배이므로 금해야 하고, 집안에 빈소를 두는 것도 유교적인 제사습관이므로 금합니다.

3-3 개선되어야 할 장례 용어들

삼우제(三虞祭)는 '첫 성묘'로: 삼우제란 유교식 전통상례 용어입니다. 우(虞)자는 염려할 우자인데, 우제(虞祭)라는 말은 시체를 매장한 뒤 그의 혼(魂)이 방황할 것을 염려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안장 후 처음으로 무덤을 살펴보는 것을 뜻하는 삼우제를 '첫 성묘'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9재(齋)는 불교식 장례의례이므로 불필요: 그런데도 교인 가운데 49재를 지내기 위해 묘소(墓所)에 가는데 교회 봉고차를 쓰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래 49재란 사람이 죽은 뒤 7일마다 재의(齋義)를 행하여 일곱 번째 되는 49일이 되면 망인(亡人)의 극락왕생이 결정된다는 불교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과 천국에 갈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습속을 배제해야 합니다.

영면(永眠) 또는 영서(永逝)는 '소천' 으로: 영면은 영원히 잠잔다는 뜻이며, 영서는 아주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담긴 말, 즉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든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별세(別世)하셨다' 는 말을 사용함도 좋을 것입니다.

명복(冥福)을 씁니다 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로: 조문할 때나 조사할 때 흔히 '명복을 빈다' 든지 '영전' 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명복은 불교에서 사자(死者)를 위하여 불사를 행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후(死後)의 행복을 비는 것을 뜻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꽃상여는 '관보' 로 대체해야: 아직도 시골에서는 꽃상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상여는 무속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당들이 꽃을 좋아하는 것은 저승을 꽃동산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도 영구차 앞을 꽃으로 장식하고 관 위에도 꽃을 올려놓는 가정도 있습니다. 시골에서 상여를 사용할 경우에는 흰 관보에 붉은 십자가를 선명히 보이게 하여 깨끗한 장례식, 교회의 장례식답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3-4 부고(訃告) 및 분향소 설치

부고(訃告)는 가까운 친척과 친지들에게 상이 났음을 알리는 것으로 호상이 상주와 의논하여 사망 시간 및 장소, 발인 일시, 발인 장소, 장지, 상주와 상제 등을 기록하게 됩니다.

분향소 설치: 유족과 장례식장과의 상담을 통해 분향소의 크기 및 종교에 따라 분향소를 배정하게 되고, 필요한 시설물이나 비품은 미리 장례식장에서 준비하도록 하면서 항상 깨끗한 느낌이 들도록 정리 정돈을 하고 난 다음 분향소를 설치합니다. 입관 전일 경우에는 유족들에게 유의 사항을 설명합니다. 빈소와 수의, 관을 고를 때 물품들을 간소화하도록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빈소: 문상을 위해 시신(屍身)을 안치하는 장소와는 별도로 영좌(靈座)를 마련하는데 이를 빈소라 합니다. 병풍을 치고 그 앞에 사진(영정)이나 성경책 등을 배설(配設)하고 상주는 빈소를 떠나지 않고 조의(弔慰)에 응대합니다.

빈소준비: 빈소에는 분향을 위해 향로와 향, 헌화용 꽃, 은은하게 들리게 하는 찬송테이프, 조기(弔旗) 등을 준비합니다. 또한 부의록(조의록), 불펜, 붓펜, 싸인펜, 부의 봉투, 금고 등이 필요합니다.

접객실: 유족과 문상객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빈소와 접객실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빈소와 접객실은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헌화: 문상객은 빈소 앞에서 향을 피우는 대신 헌화합니다. 헌화할 때는 준비된 꽃을 받아들고 영정 앞에서 잠깐 묵념한 다음, 꽃이 자신을 향하도록 상위에 올립니다. 빈소의 상황에 따라서는 민속전통에 따른 경의 표현도 가능하나 기독교인들은 두 번 절하지 않고 기도와 묵념으로 예를 표합니다. 조문후에는 상주에게 목례를 한 후 위로의 말을 전하고 물러납니다. 조의금은 상주에게 직접 전하지 말고 조의함에 넣습니다.

3-5 문상(問喪)

상주: 상주는 간소하고 정결한 상복을 갖추어 입고 빈소를 찾는 손님을 맞이하도록 합니다.

- ① 경건한 마음으로 예를 올리며 빈소를 지키며 하루 몇 차례 예배를 드립니다.
- ② 조문객이 들면 조용히 자리에 서서 기다리며, 분향 후 상주 앞으로 다가와 인사를 하면 답례로 인사합니다(조문객은 상주들을 위해 서서 인사함이 좋습니다).
- ③ 손님이 애도의 말씀을 전하거나 질문 시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답하며, 누구를 원망하거나 지나친 곡이나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 ④ 상주는 빈소를 비워 조문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문상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는 사람을 정하여 안내하도록 합니다.

조문객: 조상(弔喪)은 죽은 사람에게 죽음을 슬퍼해 예를 표하는 의미이고, 문상(問喪)은 상주에게 상을 당한 것에 대한 위문의 예를 표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죽은 사람에게 예를 올리고 그 유가족을 위로한다는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를 합쳐 조문(弔問)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상을 당했을 경우는 빠른 시간 내에 가서 정신적인 위로와 함께 원만한 장례가 치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문할 때는 예의에 맞는 옷차림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애도를 표시합니다. 그밖에 물건이나 부의금 등 상주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 ① 복장은 검정이나 회색 등 화려하지 않은 색의 정장을 하고, 화려한 악세서리 착용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② 외투는 바깥에서 벗어 들며, 빈소에 도착하면 먼저 상주에게 목례를 한 다음 분향 또는 헌화를 합니다.
- ③ 상주에게 고인의 병세나 상세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것은 예가 아닙니다.
- ④ 소지한 부의금이나 물건을 전달하고 방명록(부의록)을 작성합니다.
- ⑤ 멀리 간 조문의 경우와 가까운 친구들은 간단한 음식을 들며 유족들을 위로해도 좋습니다.
- ⑥ 유족들을 돕거나 처리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3-6 발인(發靱) 및 하관(下官)

발인은 영결식(永訣式)이라고도 하며 주검이 집에서 나갈 때 지내는 마지막 제사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자는 ‘발인’이란 말을 금하기도 합니다. 대신 ‘출상’ ‘환송예식’, 혹은 ‘장례예식’으로 부릅니다.

출상준비: 일반적인 순서는 개식, 상주 및 상제들의 분향, 종교에 따른 의례, 고인의 약력 소개, 종교의례, 추도, 조객 분향·헌화, 폐식 순으로 진행합니다. 미리 전날 장례식장 담당자와 상의해 준비하며 발인식은 통상 출상 30분 전 쯤에 빈소나 영결식장에서 진행합니다. 출상에 필요한 인원으로 영정사진을 드는 1명과 운구에 필요한 인원 6명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출상순서: 먼저 성직자가 인도하고 영정, 영구, 상주, 친척, 문상객의 순으로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운구행렬이 나갈 때 성도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화장(火葬): 현대에 와서 대부분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합니다.

- 1)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 2) 화장장으로 모실 경우 접수예약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3) 화장장 입구에서는 찬송이나 기도함을 피하고, 대기실에서 조용히 드려야 합니다.
- 4) 화장장 또는 납골당에서의 예배는 계속되는 장례일정으로 피곤한 유족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간결하게 드립니다.
- 5)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화장장 이용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6) 화장 후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 납골당에 안치하는 경우와 자연장(수목장, 화장장, 잔디장 등)으로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곳에서도 예배 후 돌아오면 좋겠고, 가족들끼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관(下官): 하관은 시신을 준비한 내광에 모시는 과정으로 매장될 묘터는 발인 당일 운구행렬보다 산역꾼들이 미리 도착해 상여가 묘터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주변 진입로를 확보하고 도착하면 바로 하관할 수 있도록 주변 작업을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3-7 장례용어

기독교인이라 해서 꼭 기독교 장례식에만 참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알려진 장례예법이나 용어를 이해하여야 장례사역자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초종(初終): 갓 돌아갔을 때 임종을 맞는 절차를 말한다. 초종에는 임종준비, 초흔, 수시, 상례시의 역할, 관의 준비, 부고 등이 포함된다.

부고(訃告): 장지와 발인 및 하관일시가 결정된 후 주변에 알리는 것.

기중(忌中): 상가의 대문이나 상주가 경영하는 점포 등의 문 앞에 상중(喪中)임을 알리기 위하여 붙여놓는 안내 표지.

상중(喪中): 초상(初喪) 동안을 말하며 기중(忌中)이라고 해서 밖에 붙인다.

수시(收屍): 탈지면 등으로 코 귀 등을 막고 눈을 감기며, 입을 다물게 하며 머리를 높이 끈다. 시신이 굳어지기 전에 시행한다.

수시포(收屍布): 시신을 덮는 흙이불.

습(襲): 시신을 깨끗이 한 후 의복(수의)을 갈아입히는 절차.

소렴(小殮): 염(殮, 또는 斂) 염이란 ‘거둔다’ ‘감춘다’는 뜻으로 운명한 다음날 시신의 몸을 베로 싸고 묶어 관에 넣도록 준비하는 의례.

대렴(大斂): 소렴한 다음날, 즉 죽은 후 사흘째 하는데, 문자 그대로 소렴을 크게 하는 것으로 시신을 큰 이불로 싸고 묶는다. 최근에는 습과 소렴, 대렴을 한꺼번에 진행한다.

입관(入棺): 염습한 시신을 관에 넣는 의식. 본래는 입관 전에 문상객을 받지 않는 것이나 현대 3일장의 경우 조문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문상 받는다.

영좌(靈座): 고인을 위해 전을 설치한 자리를 말하며 영정을 놓는다.

조등(弔燈): 상가(喪家)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집 앞의 대문이나 입구에 걸어놓는 등(燈).

완장(完葬): 상주들의 팔에 착용하는 것으로 상주용, 일반용이 구분되어 있다.

분향(焚香): 향을 태우는 일로 제사, 의례 등에서 신 혹은 영혼을 불러오기 위해 향을 피운다. 기독교인들은 예(禮)를 위해 피운다고 여긴다.

빈소(殯所): 분상객의 문상을 받기 위하여 고인의 영정을 모셔 놓은 장소.

성복(成服): 상복을 입는 절차이다. 성복 후에는 상가의 일을 호상에게 맡기고 상주는 빈소를 지켜야 한다.

명징(銘旌): 붉은 색 비단에 은분으로 고인의 성과 이름을 해서체로 쓴다.

관보(官保): 시신을 입관하여 결관(結棺) 한 후 영구(靈柩)를 덮는 보로서 일반적으로 주홍색을 사용한다. 기독교인들은 흰 천에 붉은 십자가를 그려 사용한다.

발인(發靨): 영구를 상여에 싣고 묘소로 가는 절차.

치장(治葬): 장례를 치루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매장이든 화장이든 망자에 대한 갈무리하는 절차이다. 화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고 봉안(납골) 또는 산골 등의 장례방법에 따라 준비한다. 매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횡대(橫帶): 하관시 관위에 가로로 걸쳐놓는 나무판.

취토(取土): 상주들이 깨끗한 흙을 담아 관위 세 곳에 나누어 던지는 것이다.

삼우제(三虞祭): 출상 후 3~5일째 되는 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우제는 영혼이 방황할 것을 우려하여 빈소에 안착하도록 드리는 제사이다. 초우제와 재우제, 삼우제를 지내는데, 기독교인들은 영혼부활을 믿으므로 삼우제 대신 ‘첫 성묘’를 간다.

기제(忌祭): 제삿날이라고 하며 고인이 돌아가신 날 드리는 제사. 성도들은 추모예배로 드린다.

IV. 유족 돌봄 사역

4-1 유가족 돌봄

상을 당한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을 갈망하게 됩니다. 장례사역은 장례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유족들은 몇 가지 애도와 회복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충격과 혼란의 단계: 장례 후에도 충격과 혼란의 반응은 계속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때에 함께 있으므로 안정과 위안을 주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1) 마음껏 이야기하게 합니다. 분노와 아픔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치유가 됩니다. 2) 조용히 옆에 있으면서 보살펴 줍니다. 옆에 있으면서 평상시 해야만 했던 일들을 보살펴 주면서 그로 인해서 애통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족은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내부에 죽은 이의 면모를 인정하고 강화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은 이제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상실의 슬픔을 이기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추억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애통의 단계: 비탄 그 자체는 상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때로는 분노하면서도 어느 기간 동안 애통해 하는 것이 유족들의 마음입니다. 애통해 한다고 유족을 꾸짖는다면 그들의 슬픔과 수치감과 죄책감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며, 급기야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을 해치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복의 단계: 애도의 절차도 몸이 치유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상처가 아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애도의 단계를 거쳐 죽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일부로 용해하여 자기 자신의 성격을 풍성히 만들 수 있을 때 비로소 상례 절차는 완성을 보게 되고, 바로 이처럼 풍성해진 인격 때문에 새 생활의 적응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별이 인간에게 주는 모든 충격 중에서 가장 큰 위기임을 알고, 또한 사람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가장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장례식 뒤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4-2 장례직후

우선 경청하는 것입니다. 상을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껏 이야기 하도록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지나간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세하게 말하게 유도하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동의하면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털어놓고 말하고 불평하고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움이 됩니다. 믿고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 가운데서 그의 속내를 알게 되고 필요할 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 내게 귀 기울여 주는 이가 있다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됩니다.

가만히 곁에 있으면서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평상시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해 주며 보살펴 주는 것도 귀한 도움이 됩니다. 상을 당한 사람들은 몇 날, 혹은 심한 경우 몇 달 동안 정신을 놓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들은 금방 일에 복귀하기 어렵습니다. 사후 고인이 사용하던 물품들의 처리나 보험, 부동산, 주식, 예금, 다니던 회사와의 관계 등 처리할 일들이 많습니다. 흔히 유족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쉽게 결정을 내리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돕는 것은 두고두고 고마운 일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것입니다. 눈치 빠른 이들은 허약한 순간에 정기적으로 접촉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졸지에 상을 당한 사람들은 심적 변화가 요동합니다. 금세 좋아졌다가도 또한 나빠지기도 됩니다. 제일 힘든 시간이 아침에 눈을 뜰 때입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에 잠들어 일어나는 순간, ‘아 오늘도 하루의 고독과 비참함이 시작 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 전화를 한번 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직접적인 치료가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유족에게 심각한 징후가 있거나 계속되는 육체적인 고통이 수반될 때, 지나친 상실감이나 죄책감, 분노, 견잡을 수 없는 애통이 계속될 때는 상담을 받게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권해야 합니다. 사별을 당하는 경우 애통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애통이 지나칠 경우에는 위험한 증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 후 석 달 이내에 자살자들이 많습니다. 자살까지는 아니어도 우울증에 걸려 오랫동안 고생하기도 합니다.

4-3 유족을 위한 목회적 지원

위로 예배: 첫째, 남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겪는 충격을 흡수하게 하고 그들의 슬픈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둘째, 유족들에게 상실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알려 주게 됩니다. 셋째, 때로 남은 자들이 분노를 갖는 경우가 있는데 분노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기회가 됩니다. 넷째, 남은 자 가운데는 불신자도 포함되는데 그들에게 성경적 죽음과 인생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위로 예배에서는 남은 가족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변에 친구도, 직장 동료도, 이웃들도 장례 예배에 참석하겠지만 가장 위급하고 중요한 대상은 유족이므로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목회적 지원: 위로 예배를 비롯하여 남은 사람들에 대해 목회적 돌봄과 상담, 장례 직후부터 신속한 위로와 반응을 말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남은 사람들을 집중 관찰하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필요가 무엇인지 찾아내어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지원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정적 상처는 크고 오랫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첫째, 남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인생의 문제를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즉 사랑하는 이와 사별한 후 나타나는 반응의 원인과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관련 정보를 찾아 해석한 후, 갑작스런 이별로 인한 여러 고통스런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둘째, 사망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조언을 줍니다. 고인은 부모일 수 있고, 어린 자녀일 수도 아니면 가까운 친구나 동료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부분을 목회자가 지원해 주기는 어렵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가족 상실에 따른 슬픔을 이기는 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영적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영적 지원을 받게 되면 죽음이 일생을 따라다니는 업보나 평생 그림자가 아니라, 일시적이며 순간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영적 지원을 받으면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목회적 지원은 가정의 상처를 통해 오히려 남은 이들이 가정 회복과 성장, 성숙의 기회로 삼게끔 해줍니다.

4-4 유족상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거나 충격적인 일을 만나도 직접 상담소를 찾거나 상담전문가를 찾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안의 사역자들이 이런 위기를 만난 이들을 지혜롭게 상담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유족들의 위기에 개입하여 그들을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균형을 회복하게 해주려면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설교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단점이기도 하는데, 대부분 “교회 안에서 상담하려면 설교를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상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2) 신중 하라 는 것입니다. ‘특별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오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별의 충격과 아픔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묘안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회복의 정도와 시기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말의 요술’로 엄청난 무게의 고통을 지울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며, 조심스럽게 답변해 주어야 합니다. 3) 그의 사적 세계와 사적 공간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그는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삶의 문화와 가정환경, 지나온 생애의 경험들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족들과 먼저 마음의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장례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친절과 배려, 진지한 관심과 돌봄이 마음을 열게 합니다. 옴이 생애에서 가장 어려운 충격을 겪었을 때에 방문한 친구들의 상담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옴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청’입니다. 좋은 경청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유족들은 언어와 비언어를 통해 자신의 심리 상태를 전달합니다. 특히 비언어 부분에 유의해서 경청해야 합니다. 좋은 경청은 수동적으로 듣거나 관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되 한두 가지 제시하고 유족들이 가능한 일을 선택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상담하면서 지나친 약속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돕는 자이지 그 이상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4-5 애도의 기술

사별은 언제나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계속하여 사별의 애도 상태에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지혜롭게 사별과정과 애도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남은 자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애도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애도: 나이 많은 이들은 배우자를 비롯하여 친지, 친구, 심지어 자식의 죽음으로 사별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사별에는 극복하기 힘든 충격과 슬픔이 따릅니다. 특히 한평생을 함께 했던 배우자를 잃은 노인은 슬픔, 원망, 죄의식, 후회, 상실감, 혼란, 불안 등과 같은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신체적으로 피로감이나 현기증, 불면증을 갖기 쉽고, 사회적으로도 다른 사람 만나기를 회피하거나 만나서도 아예 말이 없거나 또는 과민한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함께 있으며 위로해 주고, 고인에 대한 회상을 들어주며, 중요한 의사결정은 가능한 한 애도과정이 끝난 후 결정하도록 하고, 사별 노인이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여 심신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갑작스런 죽음의 애도: 젊은 사람들이나, 가족이 갑작스럽게 죽은 경우 그 애도는 더욱 길게 갑니다. 빨리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1) 죽음을 현실로 받아야 합니다. 2) 정서적 고통을 표현해야 합니다. 사별에서 오는 정서적 고통, 분노, 혼란 등을 표현하고 해소할 수 없으면 비정상적인 애도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별한 사람과의 관계는 현재형에서 과거형으로 추억속의 관계로 빨리 전환되어야 합니다. 4) 새로운 정체감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역할을 찾아 수행하므로 자신의 정체감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5) 상실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일부러 자신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죽음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6) 고인이 없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활을 재구성·조정하고(readjustment) 새로운 역할을 찾도록 합니다. 7) 다시 일상적인 활동에 자신의 에너지를 재투자(reinvest)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합니다.

아무리 훈련하고 애도의 기술을 갖는다 해도 슬픔은 오래가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슬픔가운데 계속 빠져 있게 되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불안증세가 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빨리 회복되도록 삶의 목표를 정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4-6 사별자의 애도 단계

사별과 같은 충격을 어떻게 해소하는가의 방법은 사별한 사람의 문화, 종교,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사별한 사람들이 빨리 고인과의 감정적인 유대를 정리하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존 보울비(John Bowlby)의 4단계 애도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무감각의 단계(numbness): 이 단계에서 사별자는 멍하고 어리둥절해 있으며 메스꺼움이나 가슴이나 목의 긴장과 조임 같은 신체적 반응을 수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이 며칠간 계속된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죽음인 경우에는 몇 주간 계속 되기도 한다.

그리워하는 단계(yearning): 사별자는 죽은 사람을 되찾으려는 마음으로 고인과 친분이 있거나 사랑했던 사람을 찾아 헤맨다. 때로는 좌절감, 분노, 죄의식을 느끼며 격렬한 슬픔을 경험하거나 통제 할 수 없을 만큼 흐느껴 울기도 하고 식욕부진과 불면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혼란과 절망의 단계(disorganization and despair): 사별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고 자주 무력감, 절망감, 우울감등을 느낀다. 이와 같은 혼란과 절망의 단계를 지나면 점차 극단적인 피로를 경험하여 평소보다 많은 잠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재조정 단계(reorganization): 혼란과 절망의 단계를 지나면 점차 집이나 직장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규칙적인 수면습관을 회복하여 에너지가 증진된다. 사랑하던 사람에 대한 생각은 슬픔을 낳기도 하지만 이런 감정들에 계속 눌러 있지는 않는다.

사별의 아픔을 경험했던 **김소엽 시인의 제안**을 여기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본인이 빨리 그 슬픔에서 헤쳐 나와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라. 둘째로 남아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라. 셋째로 먼저 상실을 경험하고 극복한 이들로부터 혼자 사는 방법을 배우라. 넷째로 종교를 가지라. 다섯째로 혼자된 자유함을 누리라. 여섯째로 살아갈 좋은 방도를 생각하라. 기타 새롭게 도전하라, 배우고 싶은 공부를 배우라,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막 통과했으니 두려울 것 라고는 이제 없을 것이다”입니다. 사랑하는 유족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조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4-7 추모(追慕)예배

추모(追慕)라는 용어가 바람직합니다. 보통 사용되는 추도(追悼)라는 용어는 죽은 이를 생각하며 슬퍼해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속에는 다분히 불신자적인 인상이 짙습니다. 추모(追慕)라는 용어의 뜻은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바른 용어는 추모(追慕)예배가 맞습니다. 추모예배는,

불신자에게는 올바른 죽음의식을 주게 됩니다. 죽음은 짓값이며 하나님을 향한 반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죽음을 잠잔다는 말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혼이 깨어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생각처럼 영혼이 다시 돌아오거나 혹은 정처 없이 세상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과 부활이 있습니다.

믿는 가족들에게는 부활신앙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신앙 안에서 위로를 받고 부활신앙이 확인되는 기회여야 합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불신자들 같이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조상과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추모예배는 조상과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면서 드려져야 합니다.

신앙상속을 인식하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추모예배는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데에 대한 감사가 따라야 합니다.

추모예배의 준비는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서 어른들의 추모일이 다가오면 이에 따른 준비에 착수합니다. 1) 예배 날짜는 추모일이 마땅하나 주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토요일이나 월요일로 옮겨서 함이 좋습니다. 2) 정오나 저녁시간 전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하는 친교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밤늦은 시간을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친척이라는 가족공동체를 초월합니다. 고인과 함께 평소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을 초대하여 고인을 추모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4) 추모예배 장소에 촛불을 켜놓거나 향을 피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고인의 사진과 화분 정도의 장식으로 경건분위기를 조성하면 될 것입니다. 5) 고인의 유품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6) 집례는 소천하신 후 1년까지는 교역자가 집행하는 것이 좋겠으나, 그 이후에는 가족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V. 장례식 설교

5-1 나사로의 죽음

누가복음 16:19-22, 찬송: 405장(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p.70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현대 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현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는 부자로 호화롭게 즐기며 살던 사람이었고, 다른 하나는 거지나사로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이후에 대해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죽은 후에 좋은 곳에 갑니다. 성경은 천국을 ‘낙원’, ‘아브라함의 품’, ‘셋째 하늘’, ‘성(城)’, ‘내 아버지 집’, ‘참 하늘’, ‘하늘’, ‘천국’, ‘주와 함께 있는 곳’ 등으로 표현하면서 사후에 믿는 자들이 들어가 거할 곳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품 같은 천국과, 물도 마시지 못하고 불꽃 가운데 고통 받는 지옥이 있음을 증거 합니다.

현세에 누리는 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 누리는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의 경우, 이 세상에서 누리던 것이 사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었고 고운 베옷을 입었으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사람이었으나 죽으니 아무것도 소용 없었습니다.

사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후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부자는 안타깝지만 다시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현재만의 기회가 있을 뿐임을 분명히 말해 줍니다. 살아 있을 때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5-2 모세의 임종

신명기 34:5-7, 찬송: 597장(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p.82

“여호와와 종 모세가 여호와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백이십 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땅을 앞두고 안타깝게도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의 임종을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종’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유용하게 쓰셨다가 이제 쉬게 하신 것입니다. 평생 이렇게 쓰임 받다 죽는 이가 복이 있습니다. 일터의 종, 쾌락의 종, 술의 종으로 살다 죽는 이도 많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 죽어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진행하며 살다가 마침내 말씀을 따라 죽었습니다. 일평생 말씀을 따라 살다가, 죽을 때도 말씀을 따라 죽었습니다. 복된 임종입니다.

모세는 무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6절에 “벳브올 맞은 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멋진 임종입니다. 자손들에게 성묘를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후에 흑사라도 자기 무덤에 와서 우상숭배 할 것을 알고, 무덤자리를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는 죽기까지 건강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모세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종으로서 죽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와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겸손하게 죽었습니다. 우리도 남은 생을 여호와와 종으로 살아갑시다. 그 후에 하나님께 부름받기 바랍니다.

5-3 야곱의 장례식

창세기 50:5-6, 찬송: 246장(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p.64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 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의 인도로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와서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죽음을 배웁니다.

그는 신앙적 유언을 남겼습니다. 5절에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 유언을 따라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성도는 신앙적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그는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역시 5절을 보면 그가 이미 묘실을 파서 준비해 놓은 것을 봅니다. 자기 장지까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창세기 47:29~30절에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미리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는 영광스런 죽음을 맞았습니다. 애굽인들이 그를 위해 칠십일을 울었습니다(3절). 애굽왕이 장례를 배려했습니다(6절). 장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장례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9절). 요셉의 지위 때문에 그러했으리라 짐작되지만 야곱이 큰 인물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애도한 것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죽어도 고향땅에 매장을 고집한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천국이 약속의 땅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영주지는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소망한 것입니다. 야곱은 살아 있을 때에도 위대한 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죽어서도 후손들에게 가나안의 비전을 던져주고 갔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임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4 아론의 복된 죽음

민수기 20:26-29, 찬송: 479장(괴로운 인생길) p.74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 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삼십 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 대제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허물도 있었고,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된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복된 죽음을 맞을 수 있는가?

죽음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알려주셨습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입니다.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시는 것을 소망하지 않나 싶습니다. 죽음의 때와 장소를 하나님이 골라주셔서 평안 중에 가는 것이 복된 죽음입니다.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했으니 복된 죽음입니다. 아론은 아주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슬픔이나 좌절보다는 죽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다하고 죽었으니 복된 죽음입니다. 아론은 호르산에 올라가 자기의 거룩한 옷을 벗어서 그의 형제와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동안 헌신했던 제사장 직분을 넘겨주고 떠난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다하다 열조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아름답게 일생을 마쳤으니 복된 죽음입니다. 아론은 제사장 옷을 벗은 후, 즉시 편안히 누워 거기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수명 이상으로 생명을 연장해 가며 살려고 고집하고 애쓰기도 합니다. 세상의 미련이나 육신의 정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아론과 같이 복된 죽음을 맞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5-5 엘리야의 인생 졸업

열왕기하 2:9-11, 찬송: 480장(천국에서 만나보자) p.75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던 길갈, 벤텔,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가에 이르자 불말이 이끄는 불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졸업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그는 제자인 엘리사에게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하고 말하면서 인생졸업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최후의 순간을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마감하면서 후배들에게 신앙적 모습을 남깁니다. 인생 최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줍니다. 겐옷을 벗어 요단강을 이리치고 저리 치니 물이 갈라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인생졸업은 천국에서 갖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코 이 땅이 졸업식장이 아닙니다. 그는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졸업식은 천국에서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늘로 부름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멋진 졸업생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5-6 스테반의 죽음

사도행전 7:55-60, 찬송: 493장(하늘가는 밝은 길이) p.78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에 많은 죽음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본받고 싶은 죽음을 꼽으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테반의 죽음입니다. 스테반처럼 죽어야 합니다.

사명감당하다 죽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밀알처럼 복음을 위해 썩어진 것입니다. 소금처럼 희생한 것이며, 파종씨앗처럼 죽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죽음을 목격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나중에 바울사도가 됩니다. 가장 멋진 죽음은 사명을 감당하다 죽는 것입니다.

영혼을 맡기고 죽었습니다. 59절에 그는 기도하기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살아있으면서는 많은 사람이 오라하고 대접받았는데, 막상 죽은 후 오라는 곳이 없으면 어찌하겠는가? 영혼을 맡기고 죽어야 아름다운 이별이 됩니다.

축복하고 죽은 귀한 죽음입니다. 돌에 맞아 그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모든 것을 풀고 죽었으며, 이해하고, 용서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고인도 가치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스테반 못지않게 충성하셨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늘 기도하며 사셨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이었습니다. 스테반처럼 가치 있는 죽음을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모든 이들이 스테반처럼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시다가 주님께 부름받길 축원합니다.

5-7 아브라함의 죽음

창세기 25:7-11, 찬송: 435장(나의 영원하신 기업) p.72

“아브라함의 향년이 백칠십오 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헛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헛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에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1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죽었습니다.

일평생 순종하다 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초기에 직업, 재산, 친척과 친구를 포기하고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창 12:1).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시자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창 22:2).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자신만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돈이나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자녀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줍시다.

그는 죽음을 미리 준비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3:16-18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가족 묘지를 구입하여 이미 아내 사를 장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절과 같이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아브라함)를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늘에 산 소망을 둔 자들이므로 영적인 준비를 먼저하고, 또 육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므로 육적인 준비도 하여야 합니다.

5-8 피할 수 없는 죽음

히브리서 9:27, 찬송: 486장(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p.76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 고인을 잃은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십니다. 누구나 인간은 피조물로 태어나 지내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질그릇 같다고 했으며(고후 4:7), 야고보사도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습니다(약 4:14). 인간은 누구나 한번은 죽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왕도 죽고,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 앞에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죽음으로 알고 남은 때 하나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한번 죽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한번 죽고 그 다음에는 천국에서 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죽음으로 더 이상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고 했습니다(롬 2:6).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죄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입니다. 불신자는 죽어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족,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분의 죽음 앞에서 결심하십시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예수 믿다가 천국에서 고인을 만나리라! 아멘

5-9 요셉의 죽음

창세기 50:22-26, 찬송: 235장(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p.63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백십 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 애굽에 팔려와 종노릇 하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으며, 드디어 애굽의 총리로 살다 110세를 일기로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요셉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을 돌아 보았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가족으로부터 배척받은 사람입니다.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되어 애굽에 팔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 명예도 얻고 권력도, 부도 얻었습니다. 얼마든지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죽을 때까지 가족을 돌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24절을 보면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유언합니다. 30세에 국무총리가(창41:46) 되어 80년 동안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유언적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합니다.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신앙고백을 남긴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나안 천국을 소망하며 죽었습니다: 요셉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자신의 시신을 안장해 놓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애굽은 자신이 평생 산 땅이고 부귀와 영화가 보장된 땅이었으나 그는 그곳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천국을 소망한 것입니다.

5-10 베다니 나사로의 죽음

요한복음 11:11-15, 찬송: 480장(천국에서 만나보자) p.75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성경은 인생을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육체가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벧전 2:24). 피었다가 사라지는 인생인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잠들었다고 합니다(11절): 그러므로 깨우려 가노라고 하십니다. 죽음은 고달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긴 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 9:24에 보면 아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소녀가 죽은 것 아니라 잔다"고 하셨습니다. 잔다는 말은 일어난다, 깨어난다는 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15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은 빨리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나사로는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를 갖고 늦추신 듯합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진리를 보여주시려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찾으신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으나 아주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자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눈물을 흘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슬픔을 곧장 이기시기 바랍니다.

5-11 영원한 집

고린도후서 5:1-2, 찬송: 279장(인애하신 구세주여) p.65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

이 시간은 참으로 가슴 아픈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4:1~3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육신은 이 땅의 장막집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 집이란 성도들의 육신을 말합니다. 이 장막 집은 육체의 나약성과 임시성 및 무가치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무너지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기 마련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최대의 문제는 곧 죽음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사람이 만든 장막이 언젠가는 무너지듯 고인의 육신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성도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이 땅의 장막이 없어지면 서운해 하고, 아쉬워하나 실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인의 육신의 장막은 무너졌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눈물과 슬픔이 없고 고통과 죽음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고인처럼 우리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대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5-12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6-8, 찬송: 360장(행군 나팔 소리에) p.66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남겼습니다.

선한싸움을 싸우라: 악한 싸움, 미움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이란 믿음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는 말입니다. 고인은 그동안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입성하셨습니다.

달려갈 길을 달리라: 기차는 기차길로 다녀야 합니다. 아니면 기차가 탈선합니다. 하늘의 비행기가 달리는 길이 있고, 뱃길도 있습니다. 고인은 그동안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잘 달렸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잘 달려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라: 사랑하는 고인은 이제 세상에서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고인은 이와 같은 바울의 고백처럼 하늘나라로 가기위한 준비를 이미 다 해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다: 성도가 하는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달려감’ ‘믿음을 지키’ 이 세가지를 잘 하신 분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고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충성하시다 주님께 부름받기 바랍니다. 오늘 장례식장에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VI. 장례예식 순서

6-1 임종예식

예 식 사 집 례 자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000님의 임종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 송 492장, 279장 다 같 이
성경말씀 누가복음 23:46 집 례 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설 교 영혼의 위탁 집 례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① 하나님께 영혼을 맡겼습니다. ②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③ 결국 죽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000님 역시 하나님께 영혼을 위탁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유족들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너무 아쉬워 마시고 하나님께도 돌아가심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 도 집 례 자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이 세상에 오는 것도 세상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가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임종을 맞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영혼을 아버지의 영원하신 품속에 품어 주시고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 도 집 례 자

6-2 조문예식(1)

예 식 사 사랑하는 000성도의 별세를 아쉬워하며 머리숙입니다
 찬 송 384장 다 같 이
 기 도 말 은 이
 성 경 데살로니가후서 2:16-17 집 례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 씬 하나님의 위로 집 례 자

갑작스럽게 하나님 품에 안기신 성도를 추모하며 여기에 모였
 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분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며 성
 도의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에게는 죽음과 함께 천국
 소망을 다시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가
 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처
 지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오히려 이
 령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사랑하십니다. 2) 영원한 위로와 소망
 을 주십니다. 세상의 위로도 고맙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힘이 됩니
 다. 소망을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
 이십니다. 3) 선한 일과 말에 굳게 서야 합니다. 장례가 나면 온
 갖 말들이 오고갑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하여 다룰 수 있습니다.
 장례는 온 가족이 함께 선한 일을 계획하고 말하는 기회여야 합니
 다.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장례를 치를 것입니다.

기 도 집 례 자
 광 고 장례일정 및 장소 안내, 예식후 교제 안내 집 례 자

* 추후 조문과 입관예식, 발인예식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축 도 집 례 자
 인 사 ... 유가족들과 마주서서 인사합니다. 주의 위로를 받는다 ... 다 같 이

6-3 조문예식(2)

- * 유족과 목례로 인사하고 영정 앞에서 헌화, 혹은 조용히 묵념한 후 뒤로 물러나 돌아선 후 앞자리부터 순서대로 앉아 예배 준비합니다.

예 식 사 집례자
 사랑하는 000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정성과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찬 송543장 다 같이
 기도 참여한 분 가운데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5:55-58 집례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설 교 하나님의 위로 집례자

오늘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길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성경에서 사망에 대해 외치고 있습니다. ① 사망이 지금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성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② 사망이 주장하는 것은 오직 죄 뿐입니다. 그러나 고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③ 유족들에게 마지막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지금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고인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나라로 들어 가셨습니다. 유족들께서는 고인이 가신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현재는 힘들지만 속히 슬픔을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 도 혹은 주기도문

6-4 조문예식(3)

- * 헌화한 후 단에 올려놓고 두 걸음 정도 물러서 선채로, 혹은 꿇어앉아 기도합니다. 뒤로 물러나 순서대로 앉아 예배를 기다립니다. 상주는 모든 가족들을 불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 식 사 집 례 자

위로의 성령께서 유족들에게 소망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 송 144장 다 같 이
성경말씀 로마서 6:22-23 집 례 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설 교 두 종류의 죽음 집 례 자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① 죄의 결과로 죽는 것입니다. 죄의 댓가는 죽음입니다. 본래 인간은 죽음이 없이 영생할 수 있었는데 태초 아담의 범죄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② 믿고 죽는 것입니다. 믿고 죽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지금은 여기 장례식장 안치실안의 많은 분들이 똑같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신자의 죽음과 신자의 죽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조문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축 도 혹은 주기도문

6-5 입관예식(1)

예 식 사 집 례 자
 지금부터 사랑하는 000성도의 입관예식을 시작합니다.

찬 송 235장 다 같 이
 기 도 말 은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섭리에 순종하여 엄숙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시들고 말라 버리고야 말 존재임을 아오나, 막상 고인 앞에 서니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이 관에 모시오나 그의 영혼은 아버지 품속에 고이 품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말씀 고린도후서 5:1 집 례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설 교 영원한 집 집 례 자

우리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①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입니다. 예수님도 이 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요 14:2-3). ② 영원한 집은 소망 중에 바라던 집입니다.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고후 5:1). ③ 영원한 집은 믿음으로 가는 집입니다(히 11:13-14). 이제 사랑하는 000님의 육신은 관 속에 들어가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 도 집 례 자

(관 뚜껑을 덮기 전에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대하기 위해 유족들이 한 줄로 서서 관 옆쪽으로 와서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축 도 집 례 자

6-6 입관예식(2)

- * 입관예배는 입관 전에, 혹은 입관 후에 진행합니다. 유족들에게는 가장 슬프고 고통스런 시간입니다. 가족들을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예 식 사 고인을 추모하며 묵도합니다

지금부터 사랑하는 000님의 입관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 송 436장 다 같 이
기 도 집 례 자
성경말씀 고린도후서 4:17-18 집 례 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설 교 잠깐과 영원 집 례 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게다가 고인을 입관하는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 유족들 마음이 아플 줄 압니다. ① 죽음은 현재 잠깐 당하는 슬픈 일입니다. 어쩌면 잠시 받는 환란인지 모릅니다. ② 그러나 죽음은 장차 크고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③ 유족들이 고인의 시신을 입관할 때 보신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지내실 것입니다. 오늘 슬픔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주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 도 집 례 자
축 도 혹은 주기도문

- * 입관예배를 먼저 드린 경우는 안내를 받아 입관실로 내려갑니다. 입관 후 예배를 드린 경우는 고인에게 작별인사 후 나옵니다.

6-7 발인(환송)예식(1)

예 식 사 집 례 자

지금부터 고 000님의 환송(장례)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찬 송 480장, 493장 다 같 이

기 도 말 은 이

성경말씀 이사야 40:6-8 집 례 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
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
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흐는 여호와와 의 기운
이 그 위에 붉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설 교 영원한 생명 집 례 자

오늘 성경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도 들의 꽃과 같
다고 했습니다. ① 인생의 한계입니다. 죽음 앞에서 겸허해야 합
니다. ② 인생무상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③ 마지막에 위
로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
로받으시길 빕니다.

조 가 (고인이 즐겨 부르던 찬송) 말 은 이

고인약력 말 은 이

조 사 말 은 이

축 도 집 례 자

(성도들은 먼저 나가 영구차량 옆에서 찬양하며 송별합니다. 안내받아
운구할 때 영정과 관을 앞세우고, 집례자, 유족, 조문객 순으로 나갑니
다)

6-8 발인(장례)예식(2)

예식사	묵상기도함으로 발인(장례)예식을 시작합니다
찬송	370장 다 같이
기도	말은 이
성경말씀	시편 90:9-10 집례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설교	신속히 가는 인생 집례자
----------	---------------------

성경에서 인생을 신속히 가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정해진 연수를 살 뿐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려해도 결국은 가고 맙니다. 오래 살았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수고와 슬픔의 인생임을 겸허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고인의 시신을 영원한 길로 보내는 여기서 우리 모두 결심해야 합니다. 남은 때 우리 인생 역시 신속히 갈 터인데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주변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세월을 아끼고 부지런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고인은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세월을 아끼며 살라고 충고하십니다. 고인이 남긴 일들, 못하다한 일, 이루지 못한 꿈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사십시오.

기도	집례자
고인약력	말은 이
추모사	말은 이
축도	혹은 주기도문

6-9 하관예식

예 식 사 ...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하관예식을 시작합니다
 찬 송 494장 다 같 이
 기 도 말 은 이
 성경말씀 요한복음 11:25-26 집 례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설 교 부활을 소망합니다! 집 례 자

긴 장례일정을 마치고 이제 하관식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슬픔과 애통함을 이기고 오늘까지 인내하신 유족들께 존경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길 빕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은 선언하셨습니다. 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세상에서 이런
 선언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부활하셨으며, 생명이
 되셨습니다. ② 믿고 죽는 자에게는 똑같은 부활을 경험할 수 있
 다고 하십니다. 여기 묻히는 고인께서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③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 역시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유
 족, 조객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선물
 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
 실 것입니다.

기 도 집 례 자
 찬 송 435장 다 같 이
 축 도 집 례 자
 복 토 ... 예식후 상주과 유족, 조문객, 교인 순으로 복토(취토)합니다.

* 예식이 끝나면 유족들은 남아 산일이 마칠 때까지 지켜보며, 조문객들과
 준비한 점심을 나누거나 혹은 형편에 따라 먼저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6-10 화장장(작별)예식

예식사 집례자

사랑하는 고인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작별예배 드립니다.

찬 송 407장 다 같이

기 도 말은 이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5:47-49 집례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설 교 흙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집례자

지금 우리는 화장장 앞에 섰습니다. 유족들에게 또 한번 슬픈 순간이며, 고통스런 순간일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도 언젠가는 한줌의 흙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은 화장장에서 뜨거운 불에 육신은 타버리지만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①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습니다. 그러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②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흙에서 났기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③ 천국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진리 앞에서 소망을 갖고 슬픔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축 도 혹은 주기도문

6-11 납골(유골안치)예식

예식사 집례자

지금부터 사랑하는 000님의 납골안치예식을 시작합니다.

조용한 기도 고인을 추모하면서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찬 송 479장 다 같이

기 도 말은 이

성경봉독 시편 34:17-19 집례자

의인이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데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데도다

설 교 믿는 자의 유익 집례자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았다면 이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갑작스런 고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기도록 힘주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조문객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위로해 주셨음에 유족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하는 이들은 유익이 있습니다. 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슬프고 괴로와 기도할 때 분명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②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세상 어디서도 고인을 잃는 슬픔을 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위로하는 척 하지만, 실은 다른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③ 믿는 자들은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는 이를 잃는 고난도 겪지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축 도 혹은 주기도문

6-12 이장예식

예 식 사 집 례 자

부활의 소망가운데 사랑하는 000님의 이장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목 도 고인을 추모하면서 조용히 기도를 드립니다.

찬 송 279장 다 같 이

성경봉독 다니엘 12:2-3 집 례 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설 교 영원히 빛나는 사람 집 례 자

가족들 모두 힘든 결단을 해서 여기 고인을 이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찾게 됩니다. 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 영생 얻는 사람, ②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고인은 첫번째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생 얻어 궁창의 빛 같이 빛날 것입니다. 살아계신 동안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였으니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모두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축 도 혹은 주기도문

6-13 위로예식(집에 돌아와)

예 식 사 집 례 자

장례를 마치고 이 예배를 통해 유족들에게 큰 위로 있기 바랍니다.

찬 송 543장 다 같 이
 성경봉독 갈라디아서 6:7-10 집 례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설 교 남은 때 어떻게 살까? 집 례 자

그동안 장례를 치르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주께서 주시는 위로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은 때 어떻게 살까하는 것입니다. 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남은 때 고인의 뭇까지 영적 농사를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②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③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친절하면서 유독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소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슬픔을 이기는 최고의 약입니다. 남은 때 사랑하며 사십시오.

축 도 혹은 주기도문

6-14 추모예식(1)

1부 예배

예식사 지금부터 고 000 성도의 추모예식을 시작합니다
찬 송 384장 다 같 이
기 도 말 은 이
성 경 여호수아 24:15 집 례 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말 씬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집 례 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은퇴하면서 백성들에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1)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젊습니다.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추모예배를 드리며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은 섬기는 대상의 종입니다. 돈을 섬기다면 돈의 종입니다. 사람을 섬기다면 사람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며 살 것인가?

2)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는 가정(家長)답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가족 중심의 사람입니다. 고인은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이 늘 함께 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가족을 제일 사랑하고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가족과 함께 신앙하는 우리집입니다.

3)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이 가나안 땅 곳곳에 퍼져 나갔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합성을 오늘도 고인이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처럼 고백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집 할렐루야!

기 도 집 례 자
고인소개 집 례 자
추모사, 고인의 유물이나 유언소개 가 족 중
주기도문 다 같 이

* 예배후에는 준비한 식사를 하면서 고인을 기억하며 추억합니다.

6-15 추모예식(2)

예 식 사 하나님 사랑하셨던 고 000님의 추모예식을 시작합니다
 기 도 집례자

사랑의 하나님 우리 000님의 추모예식을 위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멘

찬 송 559장 다 같이
 성 경 요한복음 14:1-2 집례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 씬 근심하지 말라 집례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우리 가정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000님의 기일에 모여 추모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굳게 믿음을 지키고 사셨다 돌아가신 000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아프고 힘든 가족도 있습니다.

1) 근심하지 말라: 세상을 살면서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신 후 많은 근심과 걱정도 했었습니다. 근심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힘들게 합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2) 하나님을 믿으라: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3) 처소를 예비하라: 고인은 이미 하늘나라 복된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고통 없고 눈물 없으며, 아픔 없는 천국에 우리 집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에도 하늘 처소가 예비된 줄 알고 근심보다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기 도 집례자
 고인 약력소개 가족 중

추 모 사 가족들 한 사람씩 고인을 기억하며 한마디

폐 회 주기도문 다 같이

144 예수 나를 위하여

보통으로

1.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2. 십자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3. 피와 함께 십자가를 질 때
 4. 아름답다

세상 죄를 지시 고 고 초 당 하 셴 네
 저 무지한 사 람 들 메 시 야 죽 었 네
 십자가 공로 아 니 면 영 과 원 형 이 별 반 네

후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피를 흘리니 죄인반으소서 아멘

235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통일 222)

1.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 도 거룩한 천국에
 2.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3.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4.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246 나가나안 땅 귀한 성에 (통일 221)

보통으로

1.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 버렸 네
 2.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 하겠 네
 3. 내 주린 영혼 만나로써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 네

죄 중에 다시 방황 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 네
 그 요단 강을 내 가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 네
 이 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 네

후렴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 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 네 (살겠네)

279 인애하신 구세주여 (통일 337)

조금 빠르게

1. 인 애 하 신 구 세 주 여 내 가 비 오 니
 2. 자 비 하 신 보 좌 앞 에 꿀 어 잎 드 려 니
 3. 주 의 공 로 의 지 하 여 주 께 가 오 니
 4. 만 복 근 원 우 리 주 여 위 로 하 소 서

죄 인 오 라 하 실 때 에 날 부 르 소 서
 자 복 하 고 회 개 하 시 니 날 믿 우 소 서
 상 한 맘 을 고 치 시 고 이 구 음 원 하 소 서
 우 리 주 와 갈 으 신 이 어 디 있 을 까

후렴

주 여 주 여 내 가 비 오 니

죄 인 오 라 하 실 때 에 날 부 르 소 서 아 멘

360

행군 나팔 소리에

(통일 402)

조금 빠르게

1.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났으니
 2.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 버리고
 3. 달려 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 세
 승리하신 주님과 과승 전가를 부르 세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이 누리 세

후렴

선한 싸움다 싸우고 의의면류관

의의면류관 받아 쓰리라

선한 싸움다 싸우고 의의면 류관

에루살렘성에서 면류관
면류관

받으리 저요 단강 건너
받으리

우리 싸움마치는 날 의의면 류관

에루살렘성에서

370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통일 455)

보통으로

1. 주 안에 있으면 나는 내게만 근심있으랴
 2. 그 두려움 이변하여서 내기함도 되었고
 3. 내 주 는 자 비 은 언약 은 영 별 변 하 시 고
 4. 내 주 와 맺 은 언 약 은 영 별 변 하 시 고

십자가의 길에 나아가 내 집을 풀었네
 내 그 나 락의 밭에 나아가 내 집을 풀었네
 내 그 나 락의 밭에 나아가 내 집을 풀었네
 내 그 나 락의 밭에 나아가 내 집을 풀었네

후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84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총 434)

F. J. Crosby, 1875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7)

ALL THE WAY: 8.7.8.7.8.7.8.7.8.
R. Lowry, 1875

보통으로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 도 하시 니
2.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 도 하시 니
3.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 도 하시 니

내 주 안 에 있 는 공 홀 어 찌 의 심 하 리 요
어 러 운 사 랑 어 찌 큰 도 지 말 로 수 없 도 다
그 의

믿 음 으 로 사 는 자 는 하 늘 위 로 받 게 네
나 성 는 심 감 화 받 은 단 은 영 혼 하 늘 나 우 라 갈 때 에

무 스 일 을 만 나 든 지 만 사 형 통 하 리 라
나 의 영 앞 부 를 나 의 찬 송 예 수 인 도 하 셧 네

무 스 일 을 만 나 든 지 만 사 형 통 하 리 라
나 의 영 앞 부 를 나 의 찬 송 예 수 인 도 하 셧 네 아 멘

405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통일 458)

조금 빠르게

1.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 하리니
 2.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3. 주의 보좌로 나아갈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팔에 안기세
 천성 가는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팔에 안기세
 겁과 두려움 없 어 지리니 영원하신팔에 안기세

후렴

주 의 팔 에 그 크신팔 에 안 기 세

주 님의팔 에 주 님의팔 에

주 의 팔 에 영 원 하신팔 에 안 기 세

주 님의팔 에 주 님의팔 에

407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통일 465)

조금 빠르게

1.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 다
 2. 맘속에 시험을 받을때 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때 에
 3. 뼈아픈 눈물을 흘릴때 와 쓰라린 맘으로 탄식 할 때
 4. 내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고 칠 질병이 아주 없 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 니 다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 와 주 시 네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 각 하 시 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 나 언제나 나와 함 께 제 시 네

후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 사 언제나 새 생 명 주 시 나 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 니 다 아 멘

435 나의 영원하신 기업

(통일 492)

보통으로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2. 세상부귀안일함과모든명예버리고서
 3. 어둔골짜지나가며 험한바다건너서

나의갈길다가도룩나와동행하소서
 험한길가가는동안룩나와동행하소서
 천국에이르도룩나와동행하소서

후렴

주께로가카이 주께로가오니

나의갈길다가도룩나와동행하소서 아멘

436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통일 493)

보통으로

1.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2. 주안에 감추인 새 생명이 되었으니 이전에는 지던 것
 3.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어 고도 죄인도 원수
 4. 주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 도 찬송을 부르며

새 사람이로 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친구로 변한 다 새 생명이 언은 자 영생을 누리니
 뒤따라 가리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후렴

그 사랑 내게서 해 같이 빛난 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 다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479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보통으로

1. 괴로 운 인생 길 가 는 몸 이
 2. 광야 에 인찬 생바람 가 는 더 몸 이
 3. 날 구 원 하 신 주 모 시 읊 고 도

평안 히 설 곳 이 아 주 없 네
 안 위 한 영 광 을 길 멀 지 리 앓 리 라
 영 위 한 성 도 들 세 차 는 없 으
 영 위 한 성 도 들 세 차 는 없 으

걱정 과 고 생 이 어 디 는 없 으
 산 넘 어 눈 보 라 세 차 계 불 으
 그 리 던 성 도 들 한 자 리 만 어 도
 리 리 던 성 도 들 한 자 리 만 나 리

돌아 갈 내 고향 하 늘 나 라
 돌아 갈 내 고향 하 늘 나 라 아 멘
 돌아 갈 내 고향 하 늘 나 라 아 멘

480 천국에서 만나보자 (통일 293)

보통으로

1. 천 국에서 만나 보 자 그 날아침저기 서
 2. 너 의 등불 밝혀 있 나 기 다린 다신 랑 이
 3. 기 다리 던 성 도 들 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순 례 자 여 예 비 하 라 늦 어 지 지 않 도 록
 천 국 문에 이 를 때 에 그 가 반겨 맞 으 리
 참 즐 거 운 우 리 모 임 그 열 마 나 기 쁠 라

후렴

만나 보자 만나보자 저기 보이는 천국 문에 서
 그아침에 그아침에

만나 보자 만나보자 그날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그아침에 그아침에

486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통일 474)

보통으로

1.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에 수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 히쉬 리로 다
 내 주에 수날 사랑 하시오니 곧 평안 히쉬 리로 다
 내 주에 수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 히쉬 리로 다

후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 히쉬 리로 다

492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통일 544)

보통으로

1. 잠 시 세 상에 내 가 살 면 서 항 상 찬 송 부 르 다 가
 2. 눈 물 글 짜 기 더 들 으 면 서 나 의 갈 길 다 간 후 에
 3. 나 의 가 는 길 멀 고 험 하 며 산 은 높 고 골 은 깊 어
 4. 한 숨 가 시 고 죽 음 없 는 날 사 모 하 며 기 다 리 니

날 이 저 물 어 오 라 하 시 면 영 광 중 에 나 아 가 리
 주 의 품 안 에 내 가 안 기 어 영 원 토 록 살 리 로 다
 곤 한 나 의 몸 쉴 곳 없 어 도 복 된 날 이 밝 아 오 리 라
 내 가 그 리 던 주 를 뵈 을 때 나 의 기쁨 님 치 리 라

후렴

열 린 천 국 문 내 가 들 어 가 세 상 짐 을 내 려 놓 고

빛 난 면 류 관 받 아 쓰 고 서 주 와 함 께 길 이 살 리

493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통일 545)

조금 느리게

1.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 에 있 으 니
 2. 내가 염려하 는 일이 세 상 에 많 은 중
 3. 내가 천 성 바 라 보고 가 까 이 왔 으 니

슬 픈 일 을 많 이 보 고 늘 고 생 하 여 도
 속 에 근심 밖 에 격 정 늘 시 생 하 여 도
 아 버 지 의 영 광 집 에 나 쉬 고 싶 도 다

하늘 영 광 밝 음 이 어 둔 그 늘 헤 치 니
 예수 보 배로 운 피 모 든 것 을 이 기 니
 나는 부 족 하 여 도 영 접 하 실 터 이 니

예수 공 로의 지 하여 항상 빛 을 보 도 다
 예수 공 로의 지 하여 항상 이 기 리 로 다
 영광 나 라 계 신 임 금 우리 구 주에 수 라

494

만세 반석 열리니

(통일 188)

보통으로

1. 만 세 반 석 열 리 니 내 가 들 어 갑 니 다
 2. 내 가 공 을 세 우 나 은 혜 갚 니 네
 3. 빈 손 들 고 세 앞 에 가 자 어 불 드 너
 4. 살 아 생 전 숨 쉬 고 죽 어 세 상 떠 나 서

창 에 허 리 상 하 여 물 과 피 를 흘 린 것
 습 이 어 없 이 힘 쓰 고 눈 물 근 심 심 많 으
 의 거 투 하 는 신 주 앞 에 도 끝 와 주 심 판 당 할
 때

내 게 효 험 되 어 서 정 결 하 게 소 서
 구 속 못 할 죄 인 을 예 수 호 로 속 하 네
 생 명 세 반 석 열 리 니 내 가 들 어 주 소 다
 만 세 반 석 열 리 니 내 가 들 어 주 소 다 아 멘

543

어려운 일 당할 때

(통일 342)

보통으로

1. 어 려운 일 당 할 때 나 의 믿 음 적 으 나
 2. 성 령께 일 서 내 마 음 나 밝 히 비 취 주 시 니
 3. 밝 을 때 세 에 노 래 와 어 들 때 에 기 도 로
 4. 생 명 있 을 동 안 에 예 수 의 지 합 니 다

의 지 하 는 내 주 를 더 욱 의 지 합 니 다
 인 도 하 심 따 라 주 서 주 의 만 의 지 합 니 다
 위 태 할 때 도 움 을 주 의 간 지 합 니 다
 천 국 을 라 가 도 록 의 지 할 것 뿐 일 세


후렴

세 월 지 나 갈 수 록 의 지 할 것 뿐 일 세



무 슌 일 을 당 해 도 예 수 의 지 합 니 다

559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통일 305)


보통으로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 니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한상에 둘러서 먹고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에 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597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통일 378)

보통으로

1.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2. 나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3.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4. 나하는 일들이 하도적 어 큰 열매 눈앞에 안보여도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려 주시니 고마워 라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 라 상주시 리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 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 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 라

장례사역지침서

☎☎☎☎☎ 서울 구로구 고척로 52가길 57

TEL : 02)2617-9731 FAX : 02)2617-9734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평화교회 www.pyunghwa.org

평 화 교 회

www.pyunghwa.org